

함평,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탄력’



국회 본회의서 예산 통과…국비 20억 등 사업비 424억 확보
건축기획·인허가 등 사전절차 착수…2029년 개원 목표 추진

함평군이 대한민국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유치에 성공하며 미래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8일 군에 따르면 2026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안전교육원 건축기획·인허

가 등 사전절차 이행비 20억5000만원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군은 총사업비 424억원을 확보, 본격적인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부터 이거호 국회의

원, 전남도,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쳐온 노력의 결실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모범적인 협업 사례로 평가받는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이번에 확보된 20억5000만원으로 건축기획, 교통·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2026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기획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같은 해 하반기에는 공간리계획 변경 결정과 건축 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교육원은 교통안전 전문교육, 실습·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으로, 연간 수만명의 교육생이 방문하는 핵심 공공시설이다. 해당 교육원은 함평군 대동면 자연생태공원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교육원 개원 시 교통안전 전문 인력 양

성, 지역 교통안전 연구·실험 기반 확충, 연구시설 방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일차리 창출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의 군수는 “교통안전교육원이 조속히 착공·완공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성장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규 기자 6263739@gwangnam.co.kr



“‘베비비 마사지’로 건강한 아이 키워요” 나주시가 운영한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베비비 마사지 교실’이 아기 성장 발달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초보 부모들의 정보 교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최근 올해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베비비 마사지 교실은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총 10회 진행했으며 생후 3개월부터 8개월까지 영아와 산모, 보호자 등 260여명이 참여했다.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 ‘현장·실행 중심 혁신 행정’ 성과 입증

농업농촌·보건복지·문화관광 등서 46개 표창 수상
윤병태 시장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나주 건설 매진”

나주시가 올 한 해 동안 각종 평가에서 46개의 수상 실적을 거두며 ‘현장·실행 중심 혁신 행정’의 성과를 입증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농업·농촌 분야에서 주요 상을 받으며 ‘농업 선도 도시’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2025 전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농수산식품의 우수한 품질과 해외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미국과 호주를 비롯한 8개국과 총 4470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농수산식품 수출 다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머물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5 전남도 농촌진흥사업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시는 ‘100세 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각종 평가를 석권했다.

지난달 ‘2025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 ‘2025 지역사회 건강증진 유공 우수기관’에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 ‘2025 치매 관리 사업 발전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남도지사상을 받는 등 연말 평가에서 4관왕에 오르며 보건 행정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시는 ‘2025 동물방역 위생 시·군 종합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으며 축산 기반 도시로서의 방역관리 능력도 입증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오리 사육지인 나주는 방역 부담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철저한 방역관리로 2023년 4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가축전염병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꼽힌다.

윤병태 시장은 “한 해 동안 거둔 수많은 성과는 시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와

의 협력, 공무원들의 헌신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다”며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나주’,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완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

영암, ‘가족친화기관’ 5회 연속 인증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 노력 인정

영암군은 최근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기관 인증’에서 2014년부터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기관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3년에 한 번씩 심사해 인증해주는 제도다.

영암군은 가족친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에 남녀 직원 출산휴가·육아휴직, 유연근무, 공직자 건강지원, 가족여가활동 지원 등의 성과를 제출해 서류 심사,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우승의 군수는 “공직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구례군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최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여수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알리는 개토식을 진행했다.

여수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식 개최

구례군과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최근 구례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여수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을 알리는 개토식을 진행했다.
행사에는 유족과 ‘여수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사업’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토식은 김순호 구례군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규중 여수10·19사건 구례유족회장장과 고웅조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장의 추도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제례, 발굴 사업 설명 순으로 이어졌다.

여수사건지원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발굴 사업은 ‘여수사건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하나다.

시행사인 ‘일영문화유산연구원’이 최근 사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탄환·탄피와 희생자로 추정되는 팔뚝·대퇴골 일부가 발견됐다. 위원회는 이번 발굴이 유족의 해원은 물론, 당시 구례 지역에서 벌어진 피해 양상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jin@gwangnam.co.kr

순천, 출산육아용품 대여소 확장 이전

신대스포츠허브 2층에 새단장… 시범운영 돌입

순천시는 젊은 부모와 영유아 가족이 많은 신대지구에 위치한 ‘신대 아이사랑 출산육아용품 대여소’를 확장 이전하고, 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기존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대여하던 모든 출산육아용품을 신대스포츠허브 2층으로 전면 이전에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 48종 225점의 장난감도 새로 구비해 서비스 품목을 확대했다.

대여기간은 용품 유형에 따라 출산육아용품 90일, 장난감 21일이며, 모든 용품은 소독·관리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제공

된다. 반납 후에는 점검을 통해 재대여가 이뤄진다.

시는 이번 대여소가 출산·양육 초기 필요한 용품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밀착형 복지공간으로서, 영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실질적 육아지원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요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장성, 9067농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157억원 규모…농가 경영 안정

장성군은 올해 공익직불금 157억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은 총 9067농가에 소농직불금 53억 9000만원을, 면직직불금 103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경작 면적 0.1ha~0.5ha 농가 가운데 농촌지역 3년 이상 거주, 3년 이상 영농, 농외 소득·재산 요건 충족, 준수사항 이행 등 8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가구당 ‘소농직불금’ 1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

는 농업인 가운데 농지와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는 ‘면직직불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경작면적 구간별로 단가를 정해 책정하며 면적 한도는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군은 앞선 2~5월 직불금 신청기간 운영, 5~11월 농업인·농지 자격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들어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김한중 군수는 “이번 공익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꾸준히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